



즉시 배포용: 2021년 9월 16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팬데믹 기간 동안 시행된 주정부 고용 동결 중단 발표

재정 상황 개선으로 주정부 기관들이 회계연도말까지 고용 동결을 중단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코로나19의 경제적 위험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주정부 기관들은 경계를 늦추지 않고 핵심 임무 활동을 위한 고용에 우선 순위를 둘 것

뉴욕주 예산국 게시판(Division of the Budget Bulletin)을 [여기](#)에서 읽어보십시오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코로나19 복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회계연도 말까지 주정부 기관의 고용 동결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고용 동결 중단 발표는 주지사가 경제 회복이 기대치를 상회하여 세입이 예상보다 21억 달러 증가한 [주 재정 계획](#)에 대한 최신 소식을 발표한 후 나온 것입니다. 주정부 기관들이 이제 예산국의 허가를 먼저 받지 않고 고용을 할 수 있지만 핵심적 임무를 위한 고용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하고 계속해서 자원 관리를 신중히 해야 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팬데믹과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는 뉴욕을 계속 발전시켜야 하고 뉴욕 주민들에게 최고 수준의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우리의 인력을 보강해야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델타 변이의 확산을 늦추고 모든 사업체와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주 재정을 책임있고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이번 회계연도 말까지 고용 동결을 해제함으로써 책임집행기관의 인력 수가 이달로 인해 2020년 3월부터 2021년 8월까지 풀타임 직원 수가 약 118,000명에서 약 107,500명으로 감소한 후 인력 수를 늘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